

광주 서점가 '출판사와 전쟁'

모 참고서 출판사·학원 직거래 분통...16t 판매 거부

"고유 영역 침범" 서점 입구에 안내문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 시내 서점가가 화났다. 광주 시내 일부 학원에 직거래로 교재를 공급하는 전국 유명 학습교재 출판사의 서적을 모두 수거하고, 판매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다.

'광주 서점조합'(조합장 박평기)은 16일 봉고차 5대를 동원해 광주 시내 모든 서점에서 B 출판사 서적을 수거했다. 또 각 서점 입구에 'B사 서적은 판매하지 않습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조합 측은 수거한 서적이 16t에 달하며, 시가로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은 당분간 수거한 서적을 사무실에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B사는 지난 1997년 설립해 전국에 81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참고서를 주로 발간하는 출판사다. 조합 측은 B사가 광주 시내 일부 학원에 교재를 직거래로 공급하는 바람에 서점 고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수거 및 판매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05년에도 같은 이유로 광주 지역 120여 개 중·소형 학원을 시 교육청에 고발했다. 이들 학원들이 광주 시 조례상 금지되고 있는 학원 내 교재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시 조례가 예매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 조례(제20조 등)는 '학원 내에서 교재 판매 등 상거래 행위를 하면

▲1회 적발시 5점 ▲2회 10점 ▲3회 15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판매로 인한 이득을 남기지 않고 편의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원이 서점에서 1만원의 서적을 같은 가격에 팔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점가는 학원을 상대하기보다는 출판사와 담판을 짓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조합은 B사가 학원에 교재공급을 중단하면, 판매를 즉각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박평기 조합장은 "학원은 '가르치는 것'이 임무고 서점은 '책을 파는 것'이 역할"이라며 "유력 참고서적 출판사가 모범을 보여달라는 뜻에서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서점가의 움직임을

파악,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세 서점은 참고서 매출이 전체의 70~80%에 달하고 있으나, 온라인 구매와 학원 내 교재판매 등의 영향으로 광주 시내 서점은 ▲지난 2003년 232곳 ▲2004년 223곳 ▲2005년 211곳 ▲지난해 203곳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16일 광주 총장서점 입구에 'B사 도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광주 서점조합'은 광주 시내 일부 학원에 교재를 직거래로 공급하는 이 출판사가 서점 고유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판매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

광주·전남에 362대 한 대당 하루 6~7건

무인 단속 카메라 한 대는 하루에 몇 건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적발할까?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362대(다가는 54·고정식 287·이동식 75대)에 찍힌 신호 또는 속도위반 차량이 모두 86만 219건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메라 한 대당 연간 2천300여 건, 하루에 6~7건씩 적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차량이 106만1천598대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1.23대당 1건씩 적발된 셈이다.

3%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17.3%)와 승합차(8%)가 뒤를 이었다. 위반 형태별로는 속도 위반이 93.1%, 신호 위반이 6.9%였다.

고정식 카메라 중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나주시 토계동(1만4천 269건)으로 나타났다. ▲함평군 엄다면 송다리(1만1천327건) ▲광주시 서구 삼무동 세정3거리(1만244건) ▲나주시 삼도동 나주대교(9천821건)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8천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차종과 과속 정도에 따라 3만~10만원, 신호위반은 6만~8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된 차종은 승용차가 74.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30) 김중두



순천 모 중학생 자살 사건 급우들 가혹행위 일부 확인

경찰, 학생·교사 조사

1년7개월 전 발생한 중학생(임모·16·순천 S중학교) 자살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순천경찰청은 16일 "임군의 같은 반 학우 10여 명과 3학년 담임을 조사한 결과 일부 가혹행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께 임군의 아버지 임영순(50·순천시 용당동)씨에게 아들의 자살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1년 넘게 아들의 친구 30여 명을 찾아다니며 받은 진술서 100여 장을 건넬바다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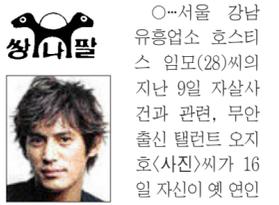
일부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임군을 흉기로 위협해 이른바 '탈런트 따라하기'를 강요하고, 교복과 가방에 침을 뱉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3학년이었던 임씨의 아들(16)은 지난 2005년 5월17일 '교우·성적·학업·진로' 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했으며, 경찰은 당시 성적 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오지호 "자살 호스티스 사랑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호스티스 임모(28)씨의 지난 9일 자살사건과 관련, 무안 출신 탤런트 오지호(사진)씨가 16일 자신이 옛 연인이었다고 고백.

○오지호는 미니홈피를 통해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드러내기 힘들었고 긴장으로 사랑했기에 그녀의 직업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며 "그녀의 영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이어 "그녀가 방탕한 생활로 인해 빛을 켜고 매도하는 기사들을 보고 저는 참기 어려웠습니다"고 반박.

○임씨는 오지호가 MBC 주말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인기를 얻으면서 만남이 뜸해져 결별했으며, 업무선불금 8천500만원이 남아 있는 등 빚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측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결혼하면 자녀 연예인 만들어 주겠다" 가수 이혼녀들 상대 사기극

현직 가수가 이혼녀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결혼 등을 조건으로 거액을 받아 쟁쟁한 가수 H(46)씨에 대해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서 주로 활동해 온 H씨는 지난 2005년 11월14일 동료 가수 소개로 알게 된 Y(여·40)씨에게 "이혼을 한 뒤 결혼을 하겠다"며 접근해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혼녀 2명

에게 모두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결혼조건 이외에도 "자녀를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음반을 제작해 주겠다. PD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환심을 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H씨가 2명의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선배와 동료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서점가 불황 어느 정도? 인터넷서점 영향 매출 20% 격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입점 '긴장'

이러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서점들의 생각은 다르다. 총장서점 조영석 상무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20% 정도 줄었다"며 "영풍문고처럼 물량 공세를 할 수 없어서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삼복서점 박학삼 영업이사는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매년 매출이 줄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20% 량 줄었다"며 "영풍문고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교보문고와 광주지역에 시장조사를 나섰고, 두암동 삼성 출판플러스와 롯데마트 월드컴퓨터도 대규모의 서점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토종 서점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열고 있다. 또 북 클럽 회원에게는 구매액의 3%를 적립해준다.

박영성 광주점장은 "조사 결과 토종 서점들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우리 서점의 독자층은 이전에 서울 등 대도시로 책을 구하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유스퀘어(U-Square)' 내에 대형 서점체인 '영풍문고' 광주점이 개장하면서 예견된 광주 서점계의 지각 변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풍문고 측은 지난 8일 기준 600평에서 1천 평으로 확장을 마치고, 할인·마일리지 서비스 등 본격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자 토종 서점들의 매출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영풍문고 광주점은 최근 확장 기념으로 2006년 베스트셀러 1천종에 대해 3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목재가공산업의 새아름 **자이리**

목재가공산업의 모토는 **"자이리"**
"일할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자이리"**와 상회하세요!"

자이리 사업분야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구조사업
- 목재가공(수출, 수입) - 목구조사업
- 목구조사업 - 목구조사업
- 목구조사업 - 목구조사업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협회
전화: 061-337-5535
팩: 061-334-5535